

화순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 건립 '탄력'

박준영지사 '군민과의 대화' 건립비 25억원 지원 약속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조감도)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지난 13일 신관 대회의실에서 박준영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박 지사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가운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의 애로를 청취하고 사업비 25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전용구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화순읍 대리

477번지 외 24필지에 총 82억원(국비 25, 특별교부세 10, 도비 15, 군비 32)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798.05㎡(건축면적 3349.88㎡), 체육관 2층, 관람석 959석의 규모로 조성된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화순 출신 이용대 선수를 기념하고 지역 꿈나루 선수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만으로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전국 최고의 배드민턴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은 국가대표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배드민턴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다. 화순실고 등에서 새로운 배드민턴 선수들이 실력을 키우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 훈련원에서도 지역 꿈나루인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갖고 유망주들의 실력향상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화순군 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정나라(24) 선수가 가고 아래(19), 유해원(19) 선수가 국가대



표 후보에 밝탁됐다.

현재 화순군은 화순군청 직장배드민턴 경기부를 생활체육 발전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 직장운동 경기부의 안정적인 훈련장소와 각종 체육행사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눈꽃에 파묻힌 목포 도심

주요 간선도로 이팝나무 꽃 만개 장관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마다 봄의 '눈꽃 축제'가 한창이다.

5월 초부터 피기 시작한 순백의 이팝나무 꽃이 중순에 접어들면서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

이팝나무는 요즘 절정이다. 하얀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은 자태가 꼭 밥그릇에 흰 쌀밥을 고봉으로 떠 담은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눈꽃 같고, 꽃잎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쌀밥을 뜻하는 옛 말인 '이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농부들은 이 나무에 꽃이 잘 피어나면 그해 농사에 풍년이 들고, 제대로 피어나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고 믿어 왔다.

현재 목포시 관내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이팝나무는 영산로를 비롯해 산정로, 하당 평화로, 하당 원형토지, 육암 지구 등 총 2500여주. 이

곳을 오가는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눈요기거리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절경에 사로잡혀 신호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처로부터 경음기소리로 핀잔을 받기 일쑤다. 이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핸드폰에 사진으로 담아가는 사람도 종종 목격된다.

경관 전문가인 김진호 씨(옹해동)는 "이팝 꽂은 유난히도 화사하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종이어서 수년 전부터 가로수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53·용당1동)씨는 "아침마다 폐선부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목포대 웅대캠퍼스까지 갔다가 MBO 앞으로 돌아오는데, 하얀 꽃이 수북수북 피어 있는 길을 지나면 두 눈 가득 하얀 꽃들이 드는 것처럼 상쾌해진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o@

강진군 기능성 쌀 '가바' 日 수출

일반 쌀보다 2.5배 높은 가격에 3년간 720t

강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능성 쌀인 '가바(GABA) 쌀'이 일본에 수출된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자연과(果)유기농(農) 판매주식회사와 가바쌀 수출에 따른 원료곡 납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일반 쌀 수출가격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올해부

터 2013년까지 3년간 연간 240t(1억 3000만엔, 21억원)을 수출하게 됐다.

KG 방 8750원으로 국내 수출 쌀 중 최고 가격이다. 자연과유기농 강진법인이 생산한 원료곡을 강진에서 가공해 가바 쌀가루로 수출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바이어 겸 판매를 맡은 일본 프리메이드 엔터테인먼트사

가 주진중인 헬로키티 캐릭터를 사용하는 일본 전통 과자류의 직접 가공 수출과 가루가 아닌 쌀로 수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출물량이 대폭 늘게 될 전망이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능성 쌀이 군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이번 수출협약을 계기로 기능성 쌀 생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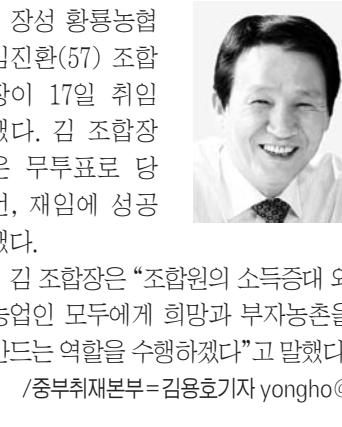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 조합장 취임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 재임에 성공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모두에게 희망과 부자동촌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황룡농협 김진환(57) 조합장이 17일 취임 했다. 김 조합장은 무